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10. 7.(수)
(사진 14시 이후)

군 장병이 믿고 쓸 수 있는 군수품...더 꼼꼼하게, 더 엄격하게

- 조달청장, 육군종합보급창 찾아 군수품 공급·보관·검수 현장 점검
- 피복·개인장구류 등 장병 밀접 품목 안정적 공급, 장병 선택권 확대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, 보급 현장까지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·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.

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·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·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·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,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.

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·관리 상태를 살펴봤다.

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,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.

조달청은 지난해 연간 2조 8,200억 원 규모의 급식·피복류 등 군수품을 공급했다.

최근에는 획일화된 규격 중심의 군수품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상용품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품 조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.

특히 장병과 각 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(MAS)을 활용한 군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.

올해에는 아이스크림을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새롭게 도입해 군 전용 쇼핑몰에서 각 부대가 다양한 제품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선택·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.

조달청은 이처럼 장병들의 실제 수요와 선호를 군수품 조달에 반영해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이고,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에 보다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아울러 피복·개인장구류 등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.

조달청은 앞으로 ‘계약→납품→검수→보급’으로 이어지는 군수품 공급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현장에서 확인된 의견을 규격과 계약, 품질 관리 등 향후 조달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군수품 조달의 최종 목적은 장병들이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,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로 공급하는 것”이라면서, “조달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품·검수·보급 현장까지 꼼꼼히 살펴 군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군수품 조달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	책임자	과 장	이순주	(042-724-6301)
		담당자	서기관	황민오	(042-724-6332)

